

## b. 말씀 앞에서 -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12: 27-31, 43-47

27.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28.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두고

29. 또 벨길갈라 게바와 아스마웻 (아스마웨스)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음들을 이루었음이라

**3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31.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43.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공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이 공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45.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46.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47. 스룹바벨 때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쉰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우리는 어느 때 ‘감격스럽다!’라는 말을 하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스스로 대견스럽고, 서로를 바라보니 기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많은 수고와 고난을 겪은 것에 대한 열매로 느껴질 때가 아닐까요?

또한 이 감격이 일시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을 돌아보며 간직할 수 있는 기념비가 된다면 그 감격이 더욱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코로나로 만나교회 교인들의 마음 속에 감격스러운 변화산이 ‘과거’의 기억속에 있습니다.

수년 전이죠.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만나교회 변화산 기도회로 인해 ‘조류독감’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변화산을 참석하고 낮이면 병든 닭처럼 조는 현상들이 발생해서 말입니다.

또 변화산이 되면 만나교회 주변의 병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가까운 MD 그린에 가면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만나교인들 이라고 합니다.

수년 전 변화산에는 ‘팔복’이라는 태명을 가진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기저기서 ‘한나석’에 앉

아 기도하던 엄마들이 기도하며 아이를 가지는 감격스러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만나교회 변화산에는 만나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부모들이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 아이들만 버스를 타고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새벽에 한 시간을 걸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변화산이 시작되면, 원주, 대구, 광주, 부산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며 오가는 성도들,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변화산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격스럽습니다. 수많은 수고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감격의 이야기들입니다.

훼손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 말입니다. 감격적인 헌신과 희생했던 이야기들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맞이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땀이 아니겠습니까?

### 즐거운 봉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전 재건과 함께 “회복의 절정”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본문 43절의 말씀은 오늘 분위기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43.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영어단어로는 “joy” “rejoice”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기뻐했는지 멀리서도 이들의 소리가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큰 기쁨은 어떤 무리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기쁨이 될 때, 참다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라는 말, 또한 ‘부녀와 아이도’라는 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계산에는 부녀와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리’라는 말에는 성인 남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잔치 자리에 아이와 부녀자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2002년 월드컵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경기를 하던 날이면 교회의 문을 열고 성전에서 대형 스크린을 앞에두고 응원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찬양팀들이 큰 북을 치면서 같이 응원했습니다. 이 때에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여서 응원하는 서로의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2021년 첫 번째 시리즈 말씀을 나누는 이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이 말씀 앞에서 성벽을 재건하며 기뻐했던 즐거움을 회복해야 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온 민족의 즐거움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온 민족의 기쁨과 감격이 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이 축제의 봉헌식을 하기 위해 둘로 나뉘어서 성벽위에 올라갔습니다. **31절의 말씀.**

31.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반은 우편에서, 반은 좌편에서 행렬을 시작하여 마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성벽위에 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느헤미야 4장에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의 비웃음을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건축하는 성읍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고 빈정대던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협박, 방해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어떤 방해에도, 어떤 비웃음에도 완공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꼬박 52일이 걸렸습니다. 질병과 미움과 모함과 질시,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다 극복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성벽이 완공 된 것은 7장에서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고,

9장에서는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에서는 인구조사와 거룩한 백성의 인구배치가 끝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봉헌하며 기뻐하는 백성들의 감격이 묻어나는 모습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들이 고백했던 말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입으로만 회복과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영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끝난 다음, 민족의 회복을 보기 전에 이미 부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이들에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회개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삶이 정리되기 시작할 때,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봉헌식에서 부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라고 되어 있지요.

봉헌식의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시편에서 감사와 찬양은 히브리어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고의 찬양과 예배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할 때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권능의 팔을 드셨음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 Holy To God!

이제 우리는 이 봉헌이 성스러운 구별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성가대 가운과 목회자 가운데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다 보니 가운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의미들이 희석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운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리기 위해 입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찬양대 아직 가운을 입고 있는데, 목사님은 죄가 없고 성가대원은 죄가 있어서 가리기 위함인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예배자로서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룩”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옷인 ‘에봇’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옷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제사장의 옷에는 가슴에 “holy to God”이라는 글씨를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글씨로 까지 새기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거룩하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이하를 보세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노를 부르며 기쁘게 모여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인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30절**을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케 된 자들이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정결케 했다”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 뿐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몸을 깨끗이 하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벌써 영적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며 결단한 무리들이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악한 세력들이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마치 변화산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역자들은 첫날 예배를 마치고 무척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새벽시간에 문으로 갑자기 몰려드는 교인들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입니다.

성정의 봉헌을 기뻐하는 자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드림에서 나타납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세요.**

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들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정한대로 제물을 가지고 오고 십일조를 가지고 오기 시작

합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건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꿈같은 영적 부흥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깨어지고 영적 분위기가 흐려지는 것이 요즘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를 못 믿어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못 믿어서 헌금을 다른 교회에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헌금을 삶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만 전 울산의 한 교회에서는 “관선 목사”가 파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문제로 분쟁이 생겼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자 재판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를 관선 목사로 파송한 후, 그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건당 3백만 원씩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창피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거룩함을 상실한 모습이지요.

드림이 즐겁고 기쁠 때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해 권사직분을 받은 분들에게 면담을 하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담임목사에게 잘 하십시오” 이 말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요 제사장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것이 기쁜 마음이 들 때 바로 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 대한 영적 각성이기도 합니다. 과연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헌금하는 방식 때문에 몇 번 회의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시간에 헌금위원이 바구니를 돌리는 순서가 없지만, 제가 그것을 고집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련되게 헌금방식을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구니를 돌리면 교회가 꼭 헌금을 거두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헌금시간을 고집했던 이유는, 그 시간이 귀한 고백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감격이 있는 곳에 지갑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톤은 어린시절 봉헌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어서 자신의 발을 넣고 ‘자신’을 드렸다는 일화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에게 봉헌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감격스런 믿음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이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헌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세련 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순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시간을 자율적인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강요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 시간이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어떤 교회에 참석했을 때, 헌금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헌금시간이 되면 목회자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중에 억지로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금은 입장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격과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위해서도 기꺼이 돈을 씁니다. 좋아하는 운동경기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선뜻 돈을 씁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꺼이 즐거워하고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말씀 앞에 서서 회복하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영적 파워 앞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고백하려는 것입니다.

참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원하며 즐거워하는 드림이 없는 것은 영적 부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 할 당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출애굽기 36장 3-5절의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드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감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드림이 아름답게 조화된 것이지요.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인 캠벨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십일조라는 돈이나 곡식헌금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 헌금의 배후에 있는 헌신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의 물질적인 헌금은 바로 영적인 헌신의 표현이다. 헌신 없이 헌금은 가능하지 않으며, 헌금으

**로 표현될 수 없는 헌신은 위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힘차게 일어나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의 헌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원하는 헌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헌신에는 감사의 고백이 있기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봉헌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영적 부흥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위에 올라가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부흥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생각하며 자원하여 헌물을 드리는 모습을 말입니다.

저는 교회 근처의 식당에서 조금 이상한 목사 취급을 받습니다.

만나교회 목사님은 돈을 잘 내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 대접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돈을 낼 때가 무척 많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돈을 내는 것도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도 기쁨이고,

그런 기뻐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기쁨이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미 당신의 삶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담임목사를 위해, 교역자들을 위해 대접하고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웃들을 향해 지갑이 열리는 것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날로 부흥하고 왕성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